서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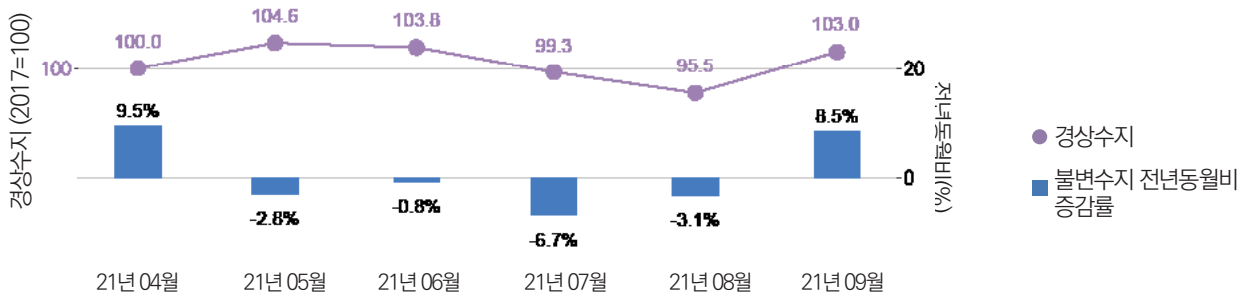
• 9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(전년동월대비) 8.5% 상승. 5개월만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등

- 전년동월대비 +8.5% = 소매업의 기여도 +4.0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+4.5%p
  (각 업종별 기여도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
  관련 설명은 부록의 '기여도' 참조
- 9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소매업과 숙박·음식점업 매출이 고르게 증가를 나타내면서 상승으로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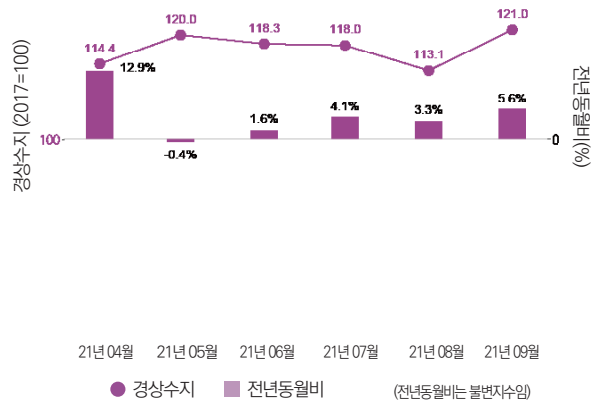
• 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는 5.6% 상승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15.6% 상승

- 9월 서울의 소매업은 세부 업종별로 (전월보다) 오름폭은 커지고 내림폭은 줄어들면서 상승세를 유지. 특히 극심한 부진을 나타냈던 의복·섬유·신발(8월, -6.2% ⇨ 9월, 18.1%)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상승으로 전환. 반면 소매업 세부 업종 중 2020년 9월 상승했던 연료(-27.2%), 기타가정용품(-18.2%), 가전제품·정보통신(-8.1%) 등은 (전년동월대비) 큰 폭으로 하락
  · 9월 서울 소매업은 의복·섬유·신발, 기타상품, 무점포소매, 문화·오락·여가, 음식료품 순으로 소비증가
  · 반면 연료, 기타가정용품, 가전제품·정보통신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
- 서울의 숙박·음식점업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세부 업종 모두 상승. 전월 하락했던 숙박(8월, -4.7% ⇨ 9월, 59.1%), 주점·커피전문점(8월, -12.4% ⇨ 9월, 49.0%), 음식점(8월, -18.0% ⇨ 9월, 3.2%)이 모두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상승으로 반전(8월, -15.4% ⇨ 9월, 15.6%)
  · 9월 서울 숙박·음식점업은 숙박, 주점·커피점문점, 음식점 등의 순으로 세부 업종 모두 소비 증가

| 서울 소비경기지수 |



| 서울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|



| 서울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|

